

# 대학생의 학과만족도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다양성수용도의 매개효과

이효선

극동대학교 항공운항서비스학과 부교수

The impact of university students' major satisfaction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mediating effect of openness to diversity

Hyo-Seon Lee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Airline Cabin Service Management, Far East University

**요약** 이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과만족도, 다양성수용도, 진로준비행동 간의 영향관계를 파악하고, 학과만족도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다양성수용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여 대학생 대상의 진로교육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충북소재 4년제 대학의 항공계열과 보건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182부의 설문응답을 최종표본으로, SPSS 23.0, AMOS 23.0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학과만족도는 다양성수용도와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양성수용도 역시 진로준비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다양성수용도는 학과만족도와 진로준비행동의 영향관계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대학생들이 효과적인 진로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학과만족도 증진과 함께 다양성수용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학과만족도, 다양성수용도, 진로준비행동, 대학생, 진로교육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n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major satisfaction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the mediating effect of openness to diversity. The survey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182 university students and SPSS 23.0, AMOS 23.0 program was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of the dat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major satisfac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openness to divers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econd, openness to diversity has a positive effec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ird, openness to diversity has a partial mediating effect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se results show that the more students enhance their major satisfaction and openness to diversity, the more students enhance their career preparation behavior.

**Key Words** : Major satisfaction, Openness to diversit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University students, Career Education

\*This paper is supported by the research fund of Far East University in 2020.(FEU2020R22).

\*Corresponding Author : Hyo-Seon Lee(happysunnie@hanmail.net)

Received February 17, 2021

Revised March 12, 2021

Accepted March 20, 2021

Published March 28, 2021

## 1. 서론

2020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의 경제적 위기와 함께 사회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은 사람들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위기감은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대학생들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상적인 대면 수업조차 어려운 대학생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전공에 대한 탐색과 진로를 설계하는 데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4차 산업 혁명의 전개로 인해 시작된 일자리의 커다란 지각변동에 코로나-19까지 겹쳐진 현실에서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대학생들에게 학과(전공)에 대한 만족은 대학생활 적응과 함께 진로를 준비하는 데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대학생 자신이 선택한 학과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면 학과에 불만을 갖게 되고 이는 대학생활 부적응으로 이어져 중도탈락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진로에 대한 준비는 방향을 잡기가 어려울 것이며 그에 따른 중압감도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1].

대학생 시기는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다. 자신의 적성과 흥미 등을 진지하게 탐색하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에 대한 방향을 정하고 성숙한 직업인이 되기 위한 역량을 키워가는 중요한 시기인 것이다[2]. 대학생들에게 진로를 준비한다는 것은 자신의 직업을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행동들을 수반한다. 김봉환(1997)은 진로준비행동을 '자신에게 맞는 진로 분야를 결정하기 위한 탐색이며 선택한 진로에 대해 준비하는 활동을 포함하는 과정'이라고 했다[3]. 이는 최근 고조되고 있는 취업난의 상황에서 대학생들에게 더욱 요구되는 준비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진로 교육은 이제 대학의 교육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되었다. 이는 대학은 이제 사회와 상호작용하며 상생하는 교육기관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4]. 대학생들의 진로 설정을 위해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노력과 함께 학생들이 빠른 사회의 변화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성수용도는 세계화 시대의 조직과 다양한 차원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역량이므로 일자리와 관련된 환경의 변화 속에서 학생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캠퍼스에서 다양한 학습은 사회통합적 사고와 함께 비판적 사고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4]. 이는 학생들이 여러 가능성에 대해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자신들의 진로를

설계하고 준비하는데에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학과에 대한 만족은 관계, 교과과정, 인식 등 여러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5].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은 사회적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대학의 학습형태가 변화하고 대학의 역할이 변화하는 시기에 대학생들의 학과만족과 진로준비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통해 진로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일은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 연구는 대학생의 학과만족도와 다양성수용도 그리고 진로준비행동 간의 영향 관계의 검증하고 이를 통하여 대학의 진로교육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학과만족도

하혜숙(1999)에 의하면 학과만족은 '개인이 계획한 진로분야나 직업에 대한 인식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소속한 학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판단과정에서 발생하는 산물'이다[5]. 이는 대학생 자신이 기대하거나 희망하는 진로분야에 대해 사회적 인식이 어떻게 자리잡고 있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대학생 자신의 지각이 학과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과 만족도는 진로를 선택하고 준비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6].

학과만족도는 전공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진로목표 설정, 자신의 흥미와 관심에 대한 탐색과 함께 높아진다[7]. 따라서 학과만족도는 성공적이고 즐거운 대학생활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졸업 후의 삶을 설계하고 준비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학생들이 학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학생은 물론 학교와 학과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학과만족을 대학생이 기대하는 직업의 기준과 비교하여 자신이 속해있는 학과를 평가하는 판단과정의 산물로 정의한다[5].

### 2.2 다양성수용도

다양성에 대한 관심은 1960년대에 미국 사회 내 소수자들의 권리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4]. 다양성에 관한 연구는 인적자원개발학, 교육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의 다양

성 교육 필요성을 강조한 Bierema(2010)는 다양성 교육을 발달과정의 시각으로 보아야 하며 다양성을 교육하는 사람들은 다양성 주제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그녀는 다양성 교육을 구성하는데 있어 다른 문화와 사회집단에 대한 자각, 성찰적 실행과 비판적 사고, 대인관계능력, 변화와 사회적 실천 등의 네 가지 영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8].

대학에서 진행되는 여러 유형의 다양성 교육은 학생들에게 사회적 자아를 형성하고, 올바른 사회정의의 가치를 배우게 하며 시민의식을 증진시키는 기회를 제공한다[9]. 대학에서는 서로 다른 배경과 신념, 가치관 등을 가진 학생과 교수 그리고 행정직원들이 함께 하며, 서로의 차이를 통해 학습하는 교육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다양성에 대한 자각은 타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존중과 인내를 배우게 하며 다양한 관점과 유연한 사고를 갖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다양성수용도를 가치관 믿음 신념, 그리고 문화 등에 대해 이해하고 받아드리고자 하는 열린 태도로 정의한다.

### 2.3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은 진로분야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변인의 하나로 합리적인 진로결정을 위해 수행하는 행동이다. 이는 인지나 태도의 차원이 아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의 차원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김봉환[3]이 진로준비행동을 정보수집행동과 도구준비행동, 그리고 목표달성행동으로 나누어 규정하면서 학문적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이후 진로준비행동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셀프리더십, 진로결정수준, 진로태도성숙 등 다양한 변인들과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은 자신에 대한 성찰과 함께 주변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10] 자신의 적성을 탐색하는 인지적 요인과 더불어 자신이 선택하고자 하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실질적인 행동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대학생활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학과만족도와 진로준비행동, 그리고 유연한 사고와 관점을 갖게 하는 다양성수용도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여 실질적인 진로교육의 체계를 세우는 일은 대학교육의 한 부분으로써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을 자신의 진로를 위해 노력하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로 정의한다.

## 3. 연구방법

### 3.1 연구모형과 가설설정

이 연구는 대학생의 학과만족도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11-13]에서 착안하여 시대적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고려할 수 있는 다양성수용도를 매개변인으로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수립하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아직까지 학과만족도와 다양성수용도, 다양성수용도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으나 이효선(2018, 2020)의 연구에서 다양성수용도가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수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4,15]. 이는 다양성수용도가 증가할수록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양성수용도가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과 함께 연구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학과만족도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다양성수용도가 매개효과를 갖는지, 학과만족도는 다양성수용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가설1>, <가설3>과 <가설4>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승철(2019), 민소라 외(2019)는 대학생의 학과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에서도 높은 수준을 보인다는 것을 검증하였다[11,12]. 또한 이승익과 이무형(2018)은 진로준비행동이 갖는 3개의 하위요인을 따로 분석하여 전공만족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는데, 정보수집활동, 도구수집활동, 목표달성활동 등 3개의 요인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하였다. 이러한 면을 고려하여 <가설2>를 설정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대학생의 학과만족도와 다양성수용도, 진로준비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Fig. 1. Research Model

- H1. 학과만족도는 다양성수용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 학과만족도는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 다양성수용도는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4. 다양성수용도는 학과만족도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 3.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이 연구는 충북 소재 4년제 대학교의 항공계열과 보건계열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1학년 부터 4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담당 교수들을 통하여 연구의 취지와 유의사항을 설명한 후 2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학과 별로 일괄 회수하였다. 설문은 2020년 12월 2일부터 12월 12일까지, 10일 간 진행되었으며 총 184명이 응답하였다. 그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설문 문항이 빠진 것을 제외하고 총 182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남학생은 80명(43.95%), 여학생은 102명(56.04%)으로 나타나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더 많았다. 학년별 분포에서는 1학년 36명(19.8%), 2학년 66명(36.3%), 3학년 39명(21.4%), 4학년 41명(22.5%)의 분포를 보였다. 계열별 분포에서는 항공계열 133명(73.1%), 보건계열 49명(26.9%)의 분포를 보였다.

### 3.3 측정도구

이 연구의 측정영역은 인구통계학적특성, 학과만족도, 다양성 수용도, 진로준비행동 등 4개의 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제외한 변인들의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학과만족도는 김계현과 하혜숙(2000)가 개발한 28개의 학과만족도 척도 중 학교만족을 제외한 나머지 21문항을 사용하였다[16]. 해당 척도는 학과에 대한 일반만족에 대한 7문항, 인식만족 5문항, 교과만족과 관련된 5문항, 그리고 관계만족을 알아보는 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양성수용도는 Pascarella와 그의 동료들(1996)이 개발하고 이효선(2014)의 연구에서 번역되어 국내 맥락에 타당성이 검증된 척도를 사용하였다[17,4]. 이 척도는 자신과 신념이나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 수준 및 다른 관점을 받아들이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총 8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진로준비행동은 김봉환(1997)이 개발한 도구로, 대학생들의 진로상담과 관련된 내용들과 진로를 결정한 대학생들의 행동유형을 분석하여 개발되었다. 해당 척도는 정보수집행동 4문항, 도구준비행동 5문항, 목표달성행동 7문항 등 총 1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3].

### 3.4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 이론적 배경 검토를 바탕으로 설정한 연구모형을 실증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사회조사방법인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수집된 설문조사 응답은 소프트웨어 SPSS 23.0 과 AMOS 23.0 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형성지표가 아닌 반영지표로 심리에서 티도 및 의도, 그리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대학생의 진로 관련 이론을 검증하는 것이므로 공분산 기반 구조방정식 모델을 대입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절차 및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설문에 응답한 학생들의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관련된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는 연구변인에 대한 설문 응답자들의 분포 특성과 정규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진행된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은 Anderson과 Gerbing(1988)이 제안한 2단계 검증법을 진행하였다. 1단계는 이 연구에서 활용한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파악하기 위한 측정모형의 적절성을 평가한다[18]. 2단계는 관찰된 자료를 연구모형에 적용시키는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연구모형을 검토하는 것이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총 5,000회의 Bootstrapping을 통해 도출된 값에 대해 bias-corrected 95% 신뢰구간을 기준으로 하여 통계적 유의성 여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 4. 연구결과

### 4.1 연구변인 기술통계 분석

연구변인을 대상으로 기술통계 분석을 수행한 결과, 학과만족 전체 구성개념의 평균은 4.102점, 하위척도는 최소 4.018점에서 최고 4.095점 범위에 분포하였다. 다양성 수용도의 평균은 3.754점이었으며, 진로준비행동의 전체 구성 개념 평균은 3.586점, 하위척도는 최소 3.337점에서 최대 3.839점 범위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편차의 경우 최소 .709에서 최고 .897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이 연구에서 적용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경우 자료에 대한 정규성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응답 자료에 대한 정규성 확인을 위해 일변량 왜도와 첨도값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일변량 왜도 절댓값 .029-.673, 첨도 절댓값 .025-.934로 나타나, 비정규성에 따른 문제 발생 가능성을 판단하는 왜도 3, 첨도 10 이하 기준[19]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Variables		M	SD	Sk	Ku
Major satisfaction	General satisfaction	4.092	.776	-.673	.025
	Curriculum satisfaction	4.095	.742	-.545	-.221
	Relation satisfaction	4.018	.816	-.349	-.934
	Perception satisfaction	4.204	.737	-.561	-.892
	Total	4.102	.709	-.431	-.717
Openness to diversity		3.754	.718	-.097	-.069
Career preparation behaviour	Information gathering	3.839	.733	-.481	.355
	Tool preparation	3.583	.878	-.111	-.340
	Goal Completion	3.337	.897	.072	-.424
	Total	3.586	.763	.029	-.273

Note. M=mean, SD=standard deviation, Sk=skewness, Ku=kurtosis

#### 4.2 측정모형의 평가: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

이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에 기초한 측정모형 평가를 실시하였다. 먼저 신뢰도 평가를 위하여 내적일관성 판단 지표인 Cronbach  $\alpha$ 와 함께 합성신뢰도(CR)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Cronbach  $\alpha$ 의 경우 학과만족 .969, 다양성 수용도 .899, 진로준비행동 .932 등 일반적으로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준되는 0.7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성신뢰도의 경우는 학과만족 .938, 다양성 수용도 .897, 진로준비행동 .901로 확인되었으며 이로써 모든 변인이 적합 판단 기준인 .6 이상으로 나타났다[20].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 선정한 연구변인의 수렴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잠재변인이 관측변인을 반영하는 크기 정도인 표준화요인적재치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표준화요인적재치는 최소 .649에서 최대 .980으로 나타나 수렴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 기준인 0.5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 다음으로 연구변인 간 변별정도 판단 기준인 판별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추출된 분산 평균과 변인 간 상관관계 비교 검증법을 활용하였다[21]. 해당 방법은 변인 간 상관관계 계수와 각 잠재변인의 추출된 분산 평균 제공근을 비교하여, 추출된 분산 평균 제공근이 큰 경우 판별타당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 Table 3과 같다. 먼저 변인 간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학과만족은 다양성 수용도와 .536, 진로준비행동과 .513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음으로 다양성 수용도는 진로준비행동과 .7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상 변인 간 상관관계는 ( $r=.513-.701$ )은 각 잠재변인의 추출된 분산 평균 제공근( $\sqrt{AVE}=.723-.890$ )보다 작으므로 판별타당도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Table 2. Result of measurement model test

Latent Variables	Observed Variables	$\beta$	t	$\alpha$	CR
Major satisfaction	General satisfaction	.980	17.823	.969	.938
	Curriculum satisfaction	.874	18.678		
	Relation satisfaction	.833	-		
	Perception satisfaction	.865	14.954		
Openness to diversity	Openness to diversity 1	.665	11.059	.899	.897
	Openness to diversity 2	.758	12.487		
	Openness to diversity 3	.761	-		
	Openness to diversity 4	.692	9.230		
	Openness to diversity 5	.649	8.634		
	Openness to diversity 6	.816	11.085		
	Openness to diversity 7	.715	9.574		
	Openness to diversity 8	.707	9.486		
Career preparation behaviour	Information gathering	.776	-	.932	.901
	Tool preparation	.932	13.688		
	Goal Completion	.889	13.169		

Note.  $\beta$ =standardized factor loadings, t=t value,  $\alpha$ =Cronbach  $\alpha$ , CR=composite reliability.

Table 3. Result of Discriminant Validity test

Variables	AVE	1	2	3
1. Major satisfaction	.791	(.890)		
2. Openness to diversity	.522	.536	(.723)	
3. Career preparation behaviour	.754	.513	.701	(.868)

Note.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Values in round bracket indicating root average variance extracted, all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alpha$  0.01 level

#### 4.3 연구모형 검증

연구모형 검증으로는 측정모형을 통하여 적절성이 검증된 연구변인 간의 경로모형과 각 경로 값을 확인하였다. 먼

저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설정에 따른 모형적합도 지수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chi^2=153.121(df=46)$ , TLI .947, CFI .962, RMSEA .077, SRMR .057, NFI .931, GFI .903 등 모형적합도 지수들이 모두 적합성 판단 기준[19]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변인 간의 영향관계를 추정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학과만족은 다양성 수용도( $\beta=.533, p<.001$ ), 진로준비행동( $\beta=.209, p<.01$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양성 수용도 또한 진로준비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592, p<.001$ ).

Table 4. Result of path analysis

Path	$\beta$	SE	CR	p
MS → OD	.533	.089	6.647	.001
MS → CPB	.209	.061	2.862	.004
OD → CPB	.592	.066	6.636	.001

Note. MS=major satisfaction, OD=openness to diversity, CPB=career preparation behaviour,  $\beta$ =standardized coefficient, SE=standard error, CR=critical ratio, p=p value

각 경로계수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증 이후 영향관계의 강도를 직접효과와 매개효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직접효과와 매개효과의 모수 추정과 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은 Bootstrapping 기법을 활용하였다. 먼저 직접 효과의 경우 학과만족이 다양성 수용도에 미치는 경로는  $\beta=.533$  이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001$ ). 또한 다양성 수용도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경로는  $\beta=.592$ 이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1$ ). 한편, 학과만족은 진로준비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직접영향을 미쳤으며( $\beta=.209, p<.05$ ), 학과만족이 다양성 수용도를 거쳐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간접(매개)효과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eta=.315, p<.001$ ). 즉 학과만족과 진로준비행동 간 영향관계에서 다양성 수용도는 부분 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5. Direct, Indirect & Total Effect

	OD			CPB		
	DE	IDE	TE	DE	IDE	TE
MS	.533***	-	.533***	.209*	.315***	.524***
OD	-	-	-	.592***	-	.592***

Note. DS=department satisfaction, OD=openness to diversity, CPB=career preparation behaviour, DE=direct effect, IDE=indirect effect, TE=total effect.  
\* $p<.05$ , \*\*\* $p<.001$

## 5. 결론

이 연구는 코로나-19로 정상적인 대면 수업, 활동 등에 어려움이 있는 환경 속에서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필요한 변인으로 학과만족도와 다양성수용도를 제시하고, 다양성수용도가 학과만족도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갖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위해 충북소재 대학의 항공계열과 보건계열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학과만족도는 다양성수용도에 정(+의 영향( $\beta=.536, p<.001$ ))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학과만족도가 높을수록 다양성수용도 증진될 것이라고 해석된다. 그러므로 <가설 1>은 채택되었다. 두 번째로 학과만족도는 진로준비행동에 정(+의 영향( $\beta=.193, p<.05$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는 지지되었다. 이는 학과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이 증진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다양성수용도 역시 진로준비행동에 정(+의 영향( $\beta=.598, p<.001$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양성수용도가 높아질수록 진로준비행동도 증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가설 3>은 채택되었다. 마지막으로 Bootstrapping기법을 사용하여 학과만족도와 진로준비행동의 영향관계에서 다양성수용도가 매개효과를 갖는지 검증하였다. 그 결과 다양성수용도는 두 변인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과만족도는 대학생들의 진로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는 학생들이 학과에 관심을 가지고 전공학습에 충실히 임한다면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잘 준비할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요즘과 같이 예측이 어려운 사회의 변화 속에서 대학생들이 자신이 선택한 학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학생과 교수 간의 상담 등을 통해 전공에 대한 구체적인 진로분야를 제시하고 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다양성수용도는 세계화와 4차산업 혁명으로 인해 빠른 일자리 환경의 변화를 경험하는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역량이다. 또한 대학에서의 다양성교육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사회적 자아 형성, 시민의식 고취, 및 사회 정의의 가치를 올바르게 알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이는 학생들이 올바른 직업관을 바탕으로 진로에

대한 준비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양성에 대한 교과목이나 프로그램의 마련과 함께 이를 진로탐색, 진로준비와 연관지어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다양성수용도는 진로분야의 변인으로 최근들어 연구가 시작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학과만족도와 진로준비행동 사이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밝혀져 진로준비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임이 입증되었다.

끝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은 이 연구에 참여한 학교가 충북지역의 1개 대학이므로 이를 전체 대학생에게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추후에는 전국으로 대학의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연구는 구조화된 방법을 통해 양적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추후에는 학생들의 인터뷰를 통한 질적연구로 대학생 진로분야의 심층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대학 진로교육에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REFERENCES

- [1] E. Y. Yu & Y. J. Yang (2013). A Study on the Difference among College Students' Department Satisfaction and Career Maturity and the Influence on Career Stress.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11(12), 557-568.
- [2] J. Y. Park. (2019).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College Students' Self-Directed Learning, Career Decision Making,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Journal of Education Studies*, 50(4), 257-274.
- [3] B. W. Kim. (1997).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4] H. S. Lee. (2014). *The Impact of University Students' Openness to Diversity on Creativity: The Mediating Effect of Cooperative Learning Competency and Unlearning Competency*. Doctoral dissertation. Jungang University: Seoul.
- [5] H. S. Ha. (1999).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and School Satisfaction of Undergraduate Students. Thesis for Mas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6] S. R. Min, Y. T. Kim, & S. K. Lee. (2019). The Influence of Major Satisfaction of the Undergraduates in Airline Service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Career Decision Level. *The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and HRD*, 15(3), 1-23.
- [7] A. Milsom., & J. Coughlin. (2015). Satisfaction with College Major: A Grounded Theory Study. *NACADA Journal*, 35(2), 5-14.
- [8] L. L. Bierema. (2010). *Diversity Education: Competencies and Strategies for Educators. Advances in Developing Human Resources*, 12(3), 312-331.
- [9] D. McPhee., J. C. Kreutzer., & J. J. Fritz. (1994). Infusing a Diversity Perspective into Human Development Course. *Child Development*, 65(2), 699-715.
- [10] B. Skorikov. (2007). Continuity in Adolescent Career Preparation and Its Effects on Adjust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0(1), 8-24.
- [11] S. C. Lee. (2019). The Effects of the Satisfaction in their Department of Senior Industry College Students and Types for Career Decision on Career Preparatory Behavior. *Korean Coporation Management Review*, 26(1), 121-138.
- [12] S. Min, Y. T. Kim, & S. K. Lee. (2019). The Influence of Major Satisfaction of the Undergraduates in Airline Service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Career Decision Level. *Korea Open Access Journals*, 15(3), 1-23.
- [13] S. I. Lee & M. H. Lee. (2018).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f College Students on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Journal of Hotel & Resort*, 17(1), 193-213.
- [14] H. S. Lee. (2018).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Openness to Diversity up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Mediating Effect of Unlearning. *Journal of The Korean Convergence Society*. 9(1), 205-212.
- [15] H. S. Lee. (2020). The impact of university students' openness to diversity upon career decision level and mediating effect of learning agility. *Journal of The Korean Convergence Society*, 11(4), 195-201.
- [16] K. H. Kim & H. S. Ha. (2000).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Factors of Undergraduate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1), 7-20.
- [17] E. T. Pascarella, M. Edison, A. Nora, L. S. Hagedorn, & P. T. Terenzini. (1996). Influences on Students' Openness to Diversity and Challenge in the First Year of Colleg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67(2), 147-195.
- [18] J. C. Anderson & D. W. Gerbing.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 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53-460.
- [19] R. B. Kline.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Guilford Press.
- [20] J. F. Hair, W. C. Black, B. J. Babin, R. E. Anderson, R. L. Tatham. (2006). *Multivariate Data Analysis*. Pearson Education International.
- [21] C. Fornell & D. F. Lacker. (1981).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Algebra and Statistic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3), 382-388.

이 효 선(Hyo-Seon Lee)

[정회원]



- 2011년 2월 : 중앙대학교 GHRD대학원 인적자원개발전략학과(인적자원개발학석사)
- 2014년 2월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인적자원개발정책학과 (인적자원개발학박사)
- 2010년 3월 ~ 현재 : 극동대학교 항공

운항서비스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다양성, 진로교육, 학습민첩성
- E-Mail : happysunnie@hanmail.net